

자극적 장면들로 논란중인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 시청자게시판서 "폐지하라" 목소리

극 중 악연들의 과거 회상서 트로피를 두고 싸우며 목베는 장면 등이 방송돼

"유해한 장면들이 너무 많다" 심의 검수 요청 국민청원까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문제들 적나라하게 보여줘" 옹호글도



SBS 새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로 단 2회 방송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시청자게시판은 물론 국민청원까지 폐지 요구가 올라왔다.

'펜트하우스'는 지난 26일 첫 방송 후 2회 만에 시청률 10%를 기록했다. 방송 후에는 배우들은 물론 인물관계도, 재방송 등 실시간 검색어에도 계속 오르며 관심이 집중됐다.

'펜트하우스'는 상류층으로 여겨지는 국내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에서 벌어지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그린다. 그 속에서 욕망과 허영으로 뒤덮인 헤라팰리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첫 방송에서는 시작하자마자 헤라팰리스에서 의문의 소녀가 추락해 피로 얼룩진 장면이 나

왔다. 또 극 중 악연인 '천서진'(김소연)과 '오윤희'(유진)의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트로피를 두고 싸우며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오는 등 자극적인 모습이 방송됐다.

2회 역시 '주단태'(엄기준)가 자신에게 반항하는 쌍둥이 아들과 딸에게 폭력성을 드러내고, 중학생인 헤라팰리스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과외 선생님이 나이와 이력을 숙였던 동갑내기 '민철아'(조수민)를 납치해 괴롭히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왔다. 이 외에도 천서진

과 주단태가 불륜의 밀회를 즐기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 같은 장면들에 '펜트하우스' 시청자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펜트하우스'는 15세 이상 관람가이지만, 청소년들이 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청자들은 "드라마를 폐지하라. 전개상 굳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과도한 폭력성이 보인다. 애들이 보고 따라할까 염려스럽다", "잠 무서운 드라마다. 내용이 너무 자극적이다", "19세 이상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인권유린에 돈이면 다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인가. 청소년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할 건가"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글과 함께 심의 검수 및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시청자는 "드라마 내용 중 유해한 장면들과 범죄 모방가능성이 너무 많다"며 "시청자 게시판에도 드라마의 유해성, 방송심의 요청 및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시청자게시판에 드라마를 옹호하는 글도 올라왔다. "드라마는 드라마다. 재미로 보는 것",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드라마가 불편하면 채널을 돌리면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펜트하우스'는 '아내의 유혹', '왔다! 장보리' 등을 집필한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PD가 '황후의 품격' 이후 재회한 작품이다. /뉴스



31일 방송되는 tvN 예능물 '온앤오프'에 출연하는 아이비.

〈사진=tvN 제공〉

## '제 전원생활 최초 공개합니다'

뮤지컬 배우 아이비, 내일 방영 tvN 예능 '온앤오프'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아이비가 양평 전원생활을 최초로 공개한다.

오는 31일 오후 10시40분 방송되는 tvN 예능물 '온앤오프'에서는 11년차 뮤지컬 배우 아이비의 '온(ON)' 모습과 양평에서 전원생활 중인 자연인 아이비의 '오프(OFF)'를 모두 공개한다.

이날 방송에서 아이비는 뮤지컬 '고스트' 프레스콜 현장을 선보인다. 과거 '차일 앤 하이드', '아이디', '시카고' 등 수많은 무대에 올라온 바 있던 아이비는 프레스콜을 준비하며 어딘가 모르게 긴장된 모습을 보인다.

그는 2016년 뮤지컬 '아이디'에서 시작된 무대공포증을 고백해 스튜디오에 있던 모두를 놀라게 만든다. 이어 아이비는 무대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웃음 유발 최면법을 공개해 눈길을 끌 예정이다.

무사히 프레스콜 무대를 마친 아이비는 남산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본인의 회사를 방문한다. 5년째 1인 소유사를 운영 중인 아이비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으니, 오늘부터 회사의 모토를 바리다메로 가자. 싸게 행사를 많이 잡아달라"고 의지를 다져 웃음을 자아낸다.

'오프'를 맞은 아이비는 양평의 전원주택을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2층으로 된 양평 집에 도착한 아이비는 편한 웃음으로 같이입으며 자연인다운 친근한 모습을 선보인다.

이어 밀린 집안일을 마친 아이비에게 뜻밖에도 손님이 방문해 눈길을 끌 전망이다. 올해 8살이라는 아이비의 절친은 익숙한 듯 집에 들어와 수다를 떨기 시작하고, 함께 폭풍 랩 배틀까지 하며 유쾌한 하루를 보낸다.

또한 아이비는 저녁이 되자 집에 놀러 온 회사 직원들과 함께 바비큐를 먹으며 식사 자리를 가진다. 이어 그들 중 독특한 이력을 가진 직원이 소개되자 스튜디오에 있던 모두가 놀랐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마마무 신곡 앨범 준비 과정 및 '오프'를 맞아 90년대로 돌아간 솔라의 추억 여행과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송민호의 분가와 작업실을 최초로 담은 일상도 함께 공개된다. /뉴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누적 관객 수 50만명 돌파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이 누적 관객 수 50만명을 돌파했다.

2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28일 6만17608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 관객 수 50만4043명을 기록했다. 지난 21일 개봉 이후 8일째 박스오피스 1위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1995년 일사 8년차, 업무능력은 베테랑이지만 고졸이라 늘 말단으로 회사 토익반을 같이 듣는 세 친구가 힘을 합쳐 회사가 저지른 비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다. /뉴스

## "교제 중 걸그룹 등 10명 넘게 바람피웠다"

'엑스' 찬열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네티즌, 폭로글 올려... SM은 입장 '無'

그들 '엑스' 멤버 찬열(사진)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폭로글을 올렸다.



29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녕하세요. 0x멤버 바츠0 전 여자친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찬열이 교제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찬열이 먼저 연락했고 이후 '빽'을 타다 사귀게 됐다는 네티즌은 "늘 새로운 여자들과 놀기에 비했다. 걸그룹

도 있었고 유투버 B, 댄서, 승무원"이라고 썼다.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 바람피우려면 몰래 피우라고. 근데 정말 몰래 많이도 피웠더라. 내가 들은 것만 10명이 넘어"라고 덧붙였다.

찬열에게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여자문제로 음악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XX버리겠다는 말을 했다. 친한 지인에게조차 남자친구 존재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내가 나쁜 XX인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네티즌은 교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찬열로 추정되는 남성과 함께 찍은 커플 사진을 올렸다 삭제했다.

이와 함께 찬열과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함께 찍은 사진까지 온라인에 다시 떠돌면서 찬열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다.

온라인 연예에 매체 '디스패치' 로고까지 합성한 이 사진은 이미 2018년 팬들 사이에서 가짜로 판명났던 사진이다. 그럼에도 이번 네티즌의 주장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찬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 로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뉴스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